광양도심숲가꾸기 공원관리 업무협약

㈜씨엠테크 · 강남지구 상가번영회 등 민간단체와 협약

광양 도심 속 공원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 유지에 앞장

사)광양도심숲가꾸기위원회(대표 소오섭)가 지난 7일 ㈜씨엠테크(사장 김주만) 1개 기업체에 연이어 민간단체인 광양강남지구 상가번영회(회장 장현희)와 공원관리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소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광양중동근린공원내 장미동산에서 ㈜씨엠테크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광양시가 시민의 편익과 휴식공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해 아름답게 잘 꾸며진 공원을 민간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관리 운영에 나서준데 대해 더 없는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공원 내 환경정비 및 정화활동에도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마금호해상공원에서는 광양강남지구 상가번영회와 협약식을 갖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운영을 위해 민간 사회단체가 솔선해 관리에 앞장서준 강남지구 상가번영회 회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맑고 깨끗한 푸른 도시의 광양시에 상가번영회 회원들께서 공원의 환경정비를 위해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번영회 김 회장은 "상가번영회 회원들의 뜻에 의해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니 만큼 함께 힘을 모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사)광양도심숲가꾸기위원회는 2007년 4월 5일 12개 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광양기업의 후원으로 발족, 기업(단체)공원 22개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 협약식은 2016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제6호에 이어 꾸준하게 진행해 오고있다.

김승호 전남동 부취재본부장

중마금호해상공원에서 강남지구 상가번영회 회장 장현희씨(좌) 도심숲가꾸기 대표 소오섭(중앙)과 광양시청 공원관리과 관계자가(우)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광양시 주요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

광양시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현안사업 5건, 1,166억 원이 지난 3월말에 실시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모두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시는 2018년 정기 제1차 중앙(행정안전부) 투자심사에 요청한 ▲(가칭)창의예술고 건립 사업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과 전라남도 투자심사에 요청한 ▲골약동 주민센터·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모두 적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20억 원을 들여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창의예술고'가 설립되면 남해안권 중등 예술교육 기반이 마련되어 시민 문화예술 향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길호대교와 금호대교 수변 일원을 조성하는 사업인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는 총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경관 보도교, 야간 경관조명, 수변쉼터 등 이순신대교와 광양만을 조망하는 친수공간이 마련됨으로써 특색있는 명소가 될 전망이다.

(구)광양역사 일원에 연면적 11,580㎡ 규모로 462억 원이 투자되는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은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추진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준공 목표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총사업비 114억 원을 투자돼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골약동 주민센터·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기능 강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사업비 110억 원이 투입되는 5만 2천㎡규모의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은 축구장, 풋살장, 산책로 등 균형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해 지역민들의 신체 및 여가활동 명소로써 역할을 다하게 된다.

김승호 전남동 부취재본부장

화순군, 어르신 일자리 1200개 추가 제공했다

화순군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6억여원을 군비로 확보해 1,2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추경 예산에 군비 25억 9,200만원을 확보, 어르신 일자리 대기자 1,300여명중 12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추가로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어르신은 기존 사업별 대기 순번대로 선발, 4월부터 8개월간 월 30시간 활동해 매달 27만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군은 이와 관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선발자를 대상으로 3일과 5일 등 2일간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1,251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사업별 활동수칙, 부정수급자 관리, 안전예방 교육 등을 했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비 확보를 통해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12월까지 6개 과정

순천시는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실무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아카데미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12월까지 ▲기초과정(입문+창업) ▲강사양성과정 ▲심화과정(역량강화+맞춤형교육) ▲청소년협동학교 ▲기업현장탐방▲사회적경제이야기마당 등 6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기초과정은 사회적 경제 이해와 성공사례, 사업화 전략 등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심화과정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요청에 의한 맞춤형 교육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량강화와 경쟁력을 갖추도록 진행된다.

사회적경제 강사양성 과정은 사회적경제 인식을 청소년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후엔 순천교육청과 연계한 중·고등학생들의 진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관심을 가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 모집은 이메일과 팩스로 신청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시민소통과(061-749-5609) 문의하면 된다.

또한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되는 기초과정 교육 수강 희망자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민소통과 임영모 과장은 이번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통해 사회적경제가치 공유와 기조 발굴, 자립기반 강화등 순천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나주시, 폐 현수막 활용한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

주택 · 상가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 마련…3개월 시범 운영

나주시가 관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폐현수막을 재료로 만든 '재활용품 전용 수거봉투'를 보급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가 정착화 된 반면에 단독 및 다세대주택, 상가 등에서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재활용품은 종이박스나 종량제 봉투 속에 담겨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분리배출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50리터와 100리터 2개 용량으로 폐현수막으로 제작된 재활용품 전용 수거봉투를 이달부터 6월까지 관내 인구 밀집 지역인 남평읍과 동(송월·영강·금남·성북·영산·이창·빛가람)지역의 단독주택 가구 등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이 기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기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올 하반기부터 나주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재활용품 전용 수거봉투 보급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의 원활한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품 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2018.1)에 근거,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줄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작 과정에 있어, 불법 게시된 폐현수막을 활용하고,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연계함에 따라, 비용 절감과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봉투 사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가구당 최대 5매(3개월 사용분)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교육없는 글로벌 소통학교 개교

순천교육지원청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윤종식)은 최근 국립순천대학교 인문예술대학 강당에서 초·중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교수, 업무담당 장학사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통 중국어 교육'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통통 중국어 교육 강좌'는 관내 초·중학생 40명이 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되었으며 학교, 지역, 국가 등 세계적인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참여와 체험중심으로 지난 7일부터 매주 토요일 2시간씩 10월까지 운영된다.

윤종식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역량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 요소다."며 "통통 중국어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역량강화의 초석이 될뿐 만아니라, 세계적인 순천의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통통 중국어 교육 강좌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을 한 순천대 정동보(중어중문과 교수)는 "성장과정의 중심에 선 아이들과 소통의 시간이 되어 참 행복하다."며 "통통 중국어 교육과정이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신장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천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이번 통통 중국어 교육은 "학생 맞춤형 참여?소통중심의 사회적 역량교육이다."며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